5月5日 (月)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申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52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吳允台

# 基督申報
THE CHRISTIAN PRESS

**聖句**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갈한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근 이니라。

아모스8장11절

## 社說
# 團結을 强調함

그리스도신자의 단결에 관하여 여러번 여러면으로 강조하여 왔으나 마이동풍격이였음은 유감천만이나 다시한번 여쭈어 보려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실천생활에 적지아니한 영향이있는때문에 윤곽적 이야기로 거듭거듭주장하는것입니다

단결이 필요하다는것은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는줄 압니다마는 필요성을 명백히하면 성과가 갑절이나 속하고 더큰 것이 이루어진다는것은 사실인데 그리스도인의 단결의필요는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가 되어 있어야할 한형제자매가 하나로 되어지지않고 있을수없는 사랑의정반대인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분열과 파당으로 수군거리고 험담과 중상과 쟁투로 전개하여 하나는 고사하고 원수를 만드러가는 현장을 본래의 모습에 돌리자는것이 첫재

둘재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단결하여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 사명을 좀더 힘있게 성과를 내자는것이며 그셋재는 민족문제에 대하여 부차적인것이지만 직접 간접으로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할것이라고 대답할것이다。

그러나 혹은 조직단결적을 강조하여 세력권을 부식 확대하려는 경향도 보이는것은 순수성을 모독하는 지나친 인간야심의 심해가 아닌가본다。그리스도를 주라 부루는 형제간에 있어야할것은 없고 미운것이 주장한다는것은 피차가 삼가야할것이고 그잘못된 원인을 반성 통회하고 하나가되여 단결된 전진만이 있어야할것인즉 이 단결을 위하여 노력하고나 갈것이다。우리는 또한 형제만인 결속이 필요한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조국과 동포의 수난과 고통을 건너마을일같이 생각지않음과 동시에 우리민족과 국가의 양심이라는 기독교계의 발거움에 주목한다。여기서 그 시비들은 캘려는것은 아니다。오직하나으로 단결하여 국가 민족의 위안과 재회망에관한 격려가 되어야할것만 바라는것이며 도리켜 우리총회의 방향에 거울이 되어지는것을안다。

재류 七十万교포의 생존 발전의 전면적인문제를 협의하던 한일회담은 일본정부의 재한재산청구로 결렬상태에있는때 민심은 진공상태에서 설곳안붙을 곳에 불안을 느끼고있다『우리는 어떻게하여야살가』하는것이 솔직한 음성이다。그리스도인들은 이한계에서 버서난사람들은 아니나 수난기에 처할방법과 말할것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 요청과 하나님의 명하시는 현실에세우신 사명을 망각하고 본국의 분열의추태를 남의나라에서 재현하려함은 그 어찌망동이 아니며 추태가아니라할가 이 거동을 득문한 필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성과 단결 협력을 다시 강조하고 거류동포에게 전할바 복음전도에 집결하여 일치한 복음침투운동을 고조하는 바이다 형제여! 자매여! 더욱히 금년은 선교二十五주년인데 『전도기념년』으로 하자는 총회의 슬로강(표어)에 따라 한마음한 뜻으로 단결될수있는 복음전도에 우선 총회지도자와 산하각 교회와 교우가하나로 묻속하여 우리민족이 뭉치면 어떤 난관에던지 승리적 발전을 할수있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 川崎僑胞部落에 禮拜堂建築
## 福音과民族과同居하는新人들
## 竣工까지는 아직 險路多大

가와사끼 사꾸라모도에 우리총회 가와사끼교회당이 선다。이곳은 공장지대인데 우리교포 약八百호 六千명이상이 거주하는 집단부락이다 동경교회 전도소로 시작된것은 오년전일이다。작년봄에 일본성서신학교를 졸업한 김봉화전도사의 꾸준한 전도는 현재 장년예배에 三十명 유년주일학교생도 五十명평균 출석하고 있다。

전도시작할때에는 사상적대립으로 상대하기에 곤난하여주일학교장소 빌리기도 어려웠으나 오직 순복음만 전하는 김전도사의 송시일관하는 신앙과 열정은 돌같은 마음을 복음화하여 자기들의 예배당을 세우자는 열열한 신앙에 불라게 되여 현금 十여万円을 모았다。

이 정성에 감복된 도민히선교사의 활동은 북장로선교회에서 만원의 원조를 받었고 카나다장로회의 三十六万원 원조 약속과 개인신도들의 깨끗한 원조등을 받어 아담한 二十七평건물 설계에 七十二万四千円 예산으로 지난二월하순에 공사는 착수하여 진행중이다。

성전준공은 四월상순예정이였던바 설계개정과 물가폭등으로 지연되며 애로에 봉착하고있는데 곤경중에도 한주간에 정기집회 세번과 금요일저녁,,정예배모임까지한다。이곳 집회에는 특별교재연구차 일본에체재중인 윤하영목사의 설교와 강연이많은 은혜를 끼치고있다。

이교회주일학교에 오는 五十여명을 위하여는 김전도사를비롯하여 동경신학대학 박훈주씨와 김석준군등 신진들인데 김석준군은 이교회에서 자라났고 금년봄에 동경신학대학에 입학한 이교회의 첫열매로 촉수한 이부락의 앞날은 기대의큰바가 있다。

# 傳道에 使命을 發見한 青年들
## 民族的活路는 基督教에있다
## 奇特한 神學校志願者들

장성 발전하는 재일본 한국기독교총회에서는 신춘에 신학교를 졸업한 신진六명의 일군이 전도전선에 참가하였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다시 五명의 청년학도가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들은 조국재건에 적지않은 공헌을할수있는 재능의소유자였으며 준비도 가춘자들이 였으나 복음전도를 그 무엇보다 귀한 사명으로 알고 전도자의길을 취한것이다。그들의 씨명에 경력을 약기하면 다음과 같다

나고야교회집사 한재수(韓在秀)씨는 나고야대학 영문학부를 이봄에 졸업하였는데 고ー베개혁파신학과 동경신학대학을 두고 오래 그 선택을 고심하다가 하리보다 순수한 정통신앙에 입각하였다는 개혁파신학교에 입학 하였다。

동경 교회 윤관병(尹官炳)집사는 현재 경응대학 의학부 졸업반에 재학중인데 의술의천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곳에 천날보다 여호와 복음을 전하는 하로를 귀히 여겨 일본성서신학교 (야간) 본과에 입학 하였다。

가와사끼교회 김석준(金錫俊)군은 三년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할때에는 장차 실업(實業)계에 활약할 계획과 희망을 가졌고 가정 형편으로도 그길이 안정할수 있는방향이 었으나 외국에서 유리하는교포와 십자가를 지고갈것을 결단하고 동경 신학대학에 입학하였다。

김두삼(金得三)씨는 고학생생활로 서남학원 상과를 지향하고 동학원 야간고등학교를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자기의사명을 신학연구에 발견하고 서남학원 신학부에 입학 하였다。

이외에 개혁파 신학교에는 또 한분의 숨은친구가 모세의 길을 배우고 있다한다。

# 美國信徒數增加
## 正統파는 避難者

미국NCC의 발표한바에 의하면 一九五〇년까지의 二十五년간에 미국인구는 二八、六%가 증가 되었는데 五十七개의 주요교파의 기독자는 五九、八%인 三一九二二六九九명이나 증가 되었다한다。그五十七교파의 二十五년후의 총수는 八五三一九二七명이 였다하며 그 증가한 것을 신교와 구교에 분리하여 보면 신교는 六四% 구교는二三%의 증가를 한것이다。각 교파 별에보면 역사짧은 남부패테스트가 약二배의七百万을 필두로 다음은 주하나님의 교회가 三一万七千명으로 증가하였고 하나님의 교회가 十七万五千명에 달하였으며 정통파여러교파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고 희랍정교회는 약百万명 디옥교파 七万五千명등으로 되어있다。미국NCC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정통의 교파회원 증가는 동구라파 방면에서외망명 입국자가 증가된 것으로본다고 한다。

# 地方實情에應하는基青
## 國際的現實理解에努力
## Y連合會協同總務코氏談

코스톤氏

대한YMCA 협동총무윌니암 코스톤씨는 봄휴가를 이용하여 지난十四일에 일본을 방문 하였는데 十八일 재일본 한국Y MOA환영회에서 한국Y의 현상을 요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국에 十개소의 도시Y가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내용은 일정치않고 그도시와 지방실정에 따라서진행되고있다。대개가전시 피난민사업을주로 영어강습회 계몽사업이다。

연합회는 당분간 부산에 머물러 있을것인데 간사양성학교(幹事養成學校)는 성과를얻었다。제일기생二十여명을(남녀三명)을 강습시키고 다시 제二기강습생을모집하고있다。앞으로 소년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개획을 세우는중인데 건전한정신과 건전한몸 명철한두뇌 노동에관한 신성서운동도 전개하려한다(四H운동) 이번여행은 전시일본기독청년운동과 전후재건에 활약한 기독교청년운동을 알어보려한것이다

재일본 한국 기독교청년운동에 있어서는 전연백지다 피취박사때부터 이야기중이던 한국Y연합회와의 관계는 앞으로더욱긴밀히 하려한다。그러나 현지에있는 회원들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한것이다。

# 聖經學校開學

경도교회당을 임시 교사(校舍)로한 한국고등 성경학교에서는 지난 四월九일 신학기(新學期)수업을 개시하였는데 학생은 장기과 五명과 단기과 九명이라 한다。

# 長老會神學校에曙光

대한장로회 교역자양성 기관인 총회신학교는 피난지인 임시교사 설비에서 전후교회의 필수교육을 하여가고 있는데 신학생의수는 기독교국을 놀라게 하는현상이나 도서설비 불충분으로 많은 고생을 당하던중 최근에는 이실정에 국제적 독지기부금품이 연속 도착하여 교수진과 학생들을 감격속에 화기롭게 하고있다고 전한다。

장로회총회신학교는 대구에 개교한이래 피난교수와학생에게는 민족구령의 기도와 알어야하며 배워야한다는 열정뿐이였고 성경이외의 참고자료는 변변치 못하였다。이소식을 들은 미국신학생들은 한국신학생구제운동을 전개 하였다는데 우선 푸린스톤신학생들이 三千딸라를 모아 신학서적을 보내였다。이에따라 남장로회 유니온신학교학생들과 북장로회 뚜복신학교학생들이 모금하여 현금으로 유용하게 써달라고 부처왔는데 그현금으로 一百五十명을 수용할수있는 기숙사를 구입하였다。뚜복신학교에는 길선주목사의 아들이신 길진경목사가 재학하고 있는데 한국장로회 신학교와의 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한다。

# 文書傳道協力을 强調
## 本紙主筆 田榮澤牧師

田榮澤牧師

우리 기독신보 편찬의 수고를 쾌히 승낙하시고 취임하여주신 전영택(田榮澤)목사님께서 요지 다음과같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시 배운바가 적고 신앙과 사람됨이 부족한 제가 이번에 자못무겁고 큰 짐을지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되니 일편 감사하고 일편 송구한 생각을 금할길이 없습니다。다만 『예수의 십자가의 도 만이 금일의 우리의 민족을 구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그 동안 우리 교계에서 문필사업에 종사하였다는 적은 경험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도으심을 힘입어 복음과 문필봉사의 일생염원을 정성껏 실현해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저하오니 여러분의 간곡한 사랑의 충언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고 아울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빌고 바라는 바입니다。』

# 望台

한사람의 영혼을 한사람의 생활을 한사람의 그무엇을 건졌거나 변혁시킬수 있었을가 이신문에서 필자는 대답할수 없다。한국인의 신문으로 三호가 나면 잘 계속된셈이라 하던 비소를 받으면서 三十호가 넘었다는것뿐이다。이것은 기적이 따른것같다。미옴과 말성도 적지 않었으나 이런것은 우리사회의 일러에 언제나 어데나 이러나는일인줄로만 알고 견디여 보았다。어떤이들은 불에 태워버린이들도 있었다한다 그런일도 있을수 있는일이지요 어떻게 맑은날만 있거나 어떻게 봄날뿐이랴! 맑은날 봄날만 찾었더면 눈 비오는날 어려드는날을 못참었을것이다。오직바라고 기다렸다。적임자 오시는 날을 그사이에는 三十여교회와 전도소의 교역자 제직 신도들을 비롯하여 유명 무명의 선배 친구 여러분의 노력과 원조와 협조와 지도 편달이 숨어 있었던것이다。더욱히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원조자들의 꾸준한 인내가 다대하였던것이다。이모든 사실들을 생각할때 자기개인의 본업을 회생시킨것은 말할여지가 없다 기독신보는 다음호부터는 체제와 모습이 달라질것이다。새롭고 풍부한 내용을 실고 여러 독자들의 기다리고 바라시는 마음들에 찾어 갈것을 반가워마지 않는다。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계를 바라는 이망대는 더 큰회망을 품으사라고 권면하면서 문을닫나이다。

# 人事

▲오ー스본救世軍總督(大將)은 지난 二十八日 日本을 訪問하여 關西,關東地方에 大復興集會를 引導中이다。

▲黃鍾律正領(韓國救世軍司令官)은 지난 三日 日本救世軍의 招請으로 來訪하였다。

# 社告

▲그동안 오래 기다리던 本社主筆 田榮澤牧師는 지난 四月二十二日 空路로 부任 하시다

▲俞錫濬長老(總會常務)는 今般 本社庶務를 兼任하고 上京執務하게 되였읍니다。

# 長老會總會선風속에 開催
## 파벌勝負보다 和合統一에
## 南北總代의 痛悔할機會

대한장로회총회는 비상사태선언을 준비하고 만반태세는 각방으로 긴장감을 주고 있는데 최근보도에 의하면 그 대세는 크게 주목할바가 있다。 과거에 문제였던 장신(長老會神學校) 조신(朝鮮神學校)과 고신(高麗神學校) 문제는 고신파의 총회이탈이후 장신과 조신은 총회직영을 취소하였다하며 용어(用語)에 새로운 보수론자니 진보론자니 하여 문제가 자못 예민히 전개를 되고있다 제三十七회 총회 총대 선출에 있어서도 제三十六회 대구 총회 에서 부터 이러난 신학 문제(?)를 분기점으로 하여 대립편당을 명확히 구분할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는지? 보수론측 총대수 八十二명 중간론자 四명 진보론자 三十六명이라 발표되였다。

이같은 수자의 총대 선거전은 격열 하였다는데 보수측의 신중한 추진에 따라 진보론자 측이 마춤내 패북 하였다하며 총회의 대세는 총대 선거에서 이미 결정된것이라하니 문제의 정진보다 파세수자로 보는것인가? 하는 의문을 남기는바없지 아니하다。

역사는 하나님이 판정하실것이고 인간은 깨끗한 신앙양심에서 엄숙히 사실을 진행 시켜야할것이라면 다시 한번 문제의소재를 명확히 하고저하나 가득이 없음으로 다음 기회에 미루고 대한장로회 총회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양진영 권위수에 이번 총회에대한 견해와 전망을 답문하여 대략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進步主義는 容納不許

보수론측 견해(영합은약함)

제三十七회총회 대세는 결성 단계에 드러갔다。 과거의문제는 해결 될것이다。 진보론자 측에서 함태영 씨가 나옴으로 와해될것이다。 신학교는 하나로 이미 결정된대로 진행될것이다 신학론에 있어서는 총회는 기정 방침대로 리베랄( )은 용납지 않키로 하였으니 전과같은 관대성은 다시 없을 것이다。 현대세계신학 론자들에 있어서도 부룬너ㅡ 빨트너ㅡ 벼ㅡ 의선을 저들이 지지한다고 하였으니 같은것으로볼것이다 일본에서도 이런신학자에게서 많이몰려섰다고하니 우리와 같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로갈줄안다。 이것은 제二차 대전이후의 세계적 경향이다。 총회에서 다수결을 한 후에 우리는 반대하였으니 그 결의는 순종할수 없다는것은 정당하지 못한것이다。 이번총회는 보수진이 다 대수니 모든 문제는 해소할 것이다。

### 神學的始作에서 感情的現實은유感

진보론자측 측근자의 견해 (성명은 약함)

우리총회는 국난중에 화합하여 하나이 되어야할것이다마는 형세는 미묘하여 예단키 어렵다。 총회내의문제는 신학교건인데 한신측은 중일신학교안건의 결의라는것은 인정치 아니한다 순수한 신학론을 중심한론쟁이면 한국기독교회를 위하여 좋은진전도 있을것이나 파벌적 세력조전은 반가운 결론을 가져올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 기독교회 지도자들이 좋은소견을 청산하고 지적내용이 풍부한신앙에서 모든 문제가 순조로서 해결되기 바란다。

### 聖潔教재建

한국성결 총회에서는 허무러진 회당을 수축재건하기 위하여 각방면으로 국내 실태조사를 하던바 그집계는 百六十四 개소에 달하고 세역은 다음과 같다。

전부 라버린 교회당 二十七
전부허무러진회당 六
절반문허진 회당 九
약간파손된 회당 四

이외에 신축할건물등이 있다

총회는 이실정을 성결교동양 선교본부에 호소하는동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十九억七千五百万円의 예산안에 원조하여 주기를 신청하였다。

### 美國大學韓人 教授二十여名

주미 한국대사관 김참사관의 말에 의하면 현재 미국 각대학에 한국인교수는 二十여명이 있다。 그들은 동양의 어느나라 출신들보다 떠러지지않은 실력으로 인기를 끌고있다한다。

# 韓國教會發展의 史的考察(6)

金良善牧師

저들의 기도는 음성조차로 야룸다워 옥판에 수정을 떠러뜨리는 듯하다。 그들의 가장 적절한 말로 드리는 고백 탄원 감사는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감화를 받아 마침내 합심기도케 되고야만다」 아니게 아니라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익숙 해진다。 그러므로 유창한 기도는 벌써 그 사람의 기도생활을 잘 표시한다。

지금으로 부터 수十년전 우리의 교회가 가장 왕성 하던 때에는 아무리 무식한 할머니의 기도라도 그 기도의 말이나 조직이 놀랄만큼 훌륭하였다。 이것을 보는 선교사 들이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한국교회의 기도생활이 다른나라교회와 다른점은 일주일에 일차식 공식기도회가 있어 전교인이 교회에 모이어 기도회를 보는것 즉 三일 기도회가 있는것과 특별한 사업을 경영하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새벽기도회」를 열고 일은 새벽에 교인 전체가 교회에 나아와 기도 하는것이다 이런 공식적인 축수 기도회는 다른나라 교회에는 별로 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처럼 기도와 시간을 많이 가지는 교회는 없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영의 힘을 얻어 기도만능을 완전히 체험한 것은 지금으로 부터 四十五년전 즉 一九〇七년 평양을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든 대기도회로 부터이였다 그때에 한국교인들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으며 기도면 못할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남자는 지위 명예를 돌볼 사이가 없이 즉 기도보다도 더 어렵던 추악한 죄악을 공공연히 자백 하였으며 여자 들은 이혼 당할것을 알면서도 그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죄를 자복하는 교인을 잡으려고 포승을 가지고 왔던 순사도 직업을 버리고 목사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였다。 이 대회개 기도회는 장기간 전한국 각지에 일어나 같은성과를거두었다

한국교회의 본격적 발전은 실로 이 대기도회 이후 부터 이었다。 죄를 감추지 못 하는 기도 이 기도만이 참 기도이요 이 기도만이 교회를 살리고 진보하게 한다。

### 傳道와 韓國教會

한국교회는 전도 잘하는 교회라는 평을 들은지 오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 보다도 즐기고 끊음없이 기도로 영력을 기른 신자라면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교회의 비상한 발전은 실로 일반 신도들의 개인전도로 말미아마 얻어진 것이다。 이 개인전도 라는 것은 곧 구원같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는 초대교인들의 신앙고백 그것 이었다 그것은 결코 구체적인 선전도 아니요 직업적인 행사도 아니었다。 오로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생명샘의 소사나는 것이었다。 아이는 아이를 여자는 여자를 청년은 청년을 노인은 노인을 각각 교회로 인도하여 들어왔다。 성경을 매일의 영외 양식으로 즐기고 기도를 쉬지 안는한 개인전도가 고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일 「성경은 사람의 지식과 견여를 중하여 기독된 때문에 구원의 진리의 탐구에는 별지장이 없으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오유( )가 많다」는 자칭 신정통파라는 사람들의 성경관(聖經觀)은 마침내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만들어서 자연히 성경을 읽은데 권태를 이르켜 매일의 영의양식에 주리게 될것이며 따라서 그렇게 힘차게 나아오던 신앙고백도 중지되고 말것이니 우리는 이런 유의 사상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것이다。

초대교회는 개인전도에만 유능하였을 뿐아니라 회중전도에도 비상한 능력이 있었다。 사경회가 열리면 오정 시간에는 전도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방전도도 하고 어떤때는 교회없는 지방을 찾어가 대전도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신학교육을 전연 받지않는 평신도들이 전도 강연을 무난히 할수 있다는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 할수 없다。 하여간 한국교회의 금일의 발전이 열심 전도에 원인 하였음을 뉘라서 부인하라?

# 世界統一工課

(본문) 출廿장7 마 五33ㅡ37

(요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히 일컨지말라 (출廿七)

(서론) 하나님은 거룩하신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인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일이 많다。 자기가 수치를 사게될때나 손해 당하게 되는 경우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사실을 묘면하고 자기 이익을 삼으므로 마침내 거짓된 생활의 결과가 거룩하신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이 많은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자는 생활에 반성을 하여 볼일이다。

(본문해설)

一、거룩하신이름 모독하지말것

7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녕되히 일컨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녕되히 일컨는자를 죄없다。 아니하리라」 (레十九12) 내 이름으로거즛 맹서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말라고 하였다。 맹서는 거즛이 엾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르치거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맹서하는것이 히부리의 풍속이었다。 이 습관이 나중에는 남용되어 하날과 땅과 성전등을 가르치며 맹서 하는 풍습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진실한체 꾸미어대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서하고 그 맹서를 안 지키니 거룩한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된다。 오늘도 신앙을 표방하는자가 그 행실로 주께 욕을 돌리는자가 없을가? 입설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으로는 멀리하는자들 혹은 경건함으로 이(利)를삼는자들이 없지 않다。

二、자연을 악용하지 말라

33 「또 옛사람이 말한바 헛맹서를 하지 말고 네 맹서한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十九장12) 모세는 맹서를 허락하였으나 예수 당시에는 맹서가 남용 혹은 악용 되었다。

34ㅡ36 「나는 너희게 이르노니 [illegible] 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ㅡㅡ」 예수께서는 맹서를 금지 하였다。 맹서는 평상시에 하는것이 아니오 비상사태에 하는것이매 흥분중에 하기쉽고 또 계획적으로 사실을 꿈고 맹서하게 되니 자기과장도 거기 있고 거짓을 진실한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꾸미는것이였다。 그러므로 금지했다。 처음에는 하늘을 가르키면서 하던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거룩한것을 가르켜 맹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날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털로도 맹서 하지말라고 가르친것이다 그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자연도 신성한것이니 인생의 죄악에 악용하지 말라고 하였다 인생이 만물보다 거짓이 많은 것이다。

37 「오직 너희의말은 옳은것은 옳다하고 않인것은 않이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것은 악으로 좇아나나니라」 우리는 검은것을 검다고 아니하는때가 많은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거짓되고 이것을 가리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히 부른다。

三、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리새교인

16ㅡ22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ㅡㅡ」 성전을 가르켜 맹서 한것은 아무 일 없어도 성전의 금을 가르처 한 맹서는 지켜야 하고 제단은아무일 없어도 예물을 가르켜 맹서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구별하니 무엇때문에 성전과 성전의 금을 분간하며 제단과 예물을 구별하는교 구별할려이면 차라리 금이나 제물은 단순한 물질뿐이지만 성전에 놓고 제단에 두니 성물이된것인즉 성전과 제단이 더 높은것이다。 이런 괴변으로 꺼구로 마추어 자기 거즛을 합리화하는 바리새의 가중한 죄악을 책망하신 것이다。 성경으로 성경을 부곡시켜 설명하면서 성경을 거스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말과 행위 신앙과 생활의 불조화로 하나님께 욕 돌리는 [illegible]

# 聖經要理問答(12)

總會治理局提供

八十八

문、그리스도께서 무슨 보이는 방법으로써 속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배푸섰나뇨

답、그리스도께서 속죄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배푸사 보이시는바 예사로운 방법은 그 예전인데 특별한것은 그말씀과 성례와 기도니 이것은 다 하나님의 택신 백성으로 하여곰 구원 얻는데 효험이 되게 [illegible]

마廿八〇十九ㅡ二十

八十九

문、어찌하야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곰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나뇨。

답、하나님의 신이 사람으로 성경을 외오게만 할뿐 아니라 특별히 말씀을 강론 하는것으로 일을 방도를 삼으시나니 성경이 죄있으로 하여곰 깨다께 하며 [illegible] 로합을 세우고 구원 얻기 까지 이르게 하나니라

느八〇八 고전十四〇廿五 행廿六〇十八 시十九〇八 행二十〇三十二 로마十五〇三 딤후三〇十五ㅡ十七 로마十〇十四、十七 一〇十六

九十

문、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외오고 드러야 반다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겠나뇨。

답、성경이 우리로 하여곰 구원을 얻게하는 방도가 되게 하랴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서 생각하며 [illegible] 고 행실에 나타낼지니라

잠八〇三十四 신六〇六 배스전二〇二 시百十九〇十八 히四〇二 살후二〇十 누가八〇十五 약一〇廿五

九十一

문、성례가 어찌하야 사람으로 하여곰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나뇨。

답、성례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하는 방도가 되는것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성례를 배푸는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만 그리스도의 주시는 복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자가 [illegible] 말미아마 되는 것이니라。

배전三〇廿一 七마三〇十 고전三〇六七 고전十二〇十三

九十二

문、성례가 무엇이뇨。

답、성례는 그리스도 께서 세우신바 거룩한 규측 인대 성례는 눈에 보이는 표로서 그리스도와 및 새 언약의 은혜를 믿는자에게 보여 인치고 부처주는 것이니라。

창十七〇七十 출十二〇 고전十一〇二十三、二十六

九十三

문、신약의 성례가 무엇이뇨。

답、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라。 [illegible] 二十六ㅡ二十八 고전十一〇二十三ㅡ二十九

九十四

문、세례가 무엇이뇨。

답、세례는 성례인데 물로써 아바지와 아달과 성신의 이름으로 씻난 것이니 우리로 하여곰 그리스도에게 부치는것과 은약의 효험에 참예 하는것과 주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것을 표하여 인치는 것이니라。

로마六〇四 갈三〇二十七

九十五

문、세례는 어떠한 사람 에게 배푸나뇨。

답、세례는 교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하며 [illegible] 이르러야 배풀것이오 또 입교한 자에게 배푸나니라

행八〇卅六ㅡ卅七 행二〇卅三ㅡ卅九 고전七〇十四

九十六

문、주의 성찬이 무엇이뇨。

답、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것으로 그 주그심을 나타냄이라。 합당하게 받는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예함이 아니오 믿음으로서 몸과 피에 참예하야 자기의 신령하게 받는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이 그외 모든 효험을 받음이니라。

---

(定價1部10圓)

## 說教 神의平康(1)

京都教會 田永福牧師

하고 비할길도 자취하라는것이 현대의 특별한 경향이거늘 예수의 말씀도 이성의 복종으로써 자취하게되는 심각성을 과학과 철학의 세계에 제외하고 결국 평안의 보배를 자취하라 [illegible] 불안에 자민 자탄한 사람에게는 천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최상의 은총이 될것입니다 여기에참다운 평안이 있는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평안함이 없나니라 (이사야四十八〇廿二)

二、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삼일후 부활하셨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적 불안 곧 사망의 불안에 일생 노예 생활 할것입니다。 현대의 대표적 대학자도 비행기의 추락으로 순간에 [illegible] 저언덕인대 그리스도는 분명코 역사적 현실에 부활하시고 영생의 증거를 주셨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아마 이 영원한 인생의 불안 사망의 공포 [illegible] 적 대불안에 끝없는 추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대우주의 대공간에 충만한 대신비 대절서 그 공간적 장소적 세계에 마지막으로 인생은 찾어가려는 [illegible]

## 殉教史話 사랑의原子彈(18)

안용준

일동은 인재야 목사님의 그一전서四장十三절로 十八절까지 [illegible]

## 說教 神의 平康 (1)

京都敎會 田永福 牧師

하나님의 평강

아모것도 염려 하지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외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여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四○ 六ㅣ七

예수께서 승천하시기전에 최후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것은 평강이였읍니다。(요十四○卄七) 사도바울은 사람의 지각에 뛰여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고백하였읍니다。

자고로 인간의 최상의 요구는 마음에 참다운 평안입니다 인지문명이 극도에 발달되고 생의 행복의 최상을 자랑하는 현대에 있어서도 인간중심에 진정원하는것은 반석같은 안심입니다。세계모든 종교의 구국의 목적은 안심립명이며 고해같은 인생행로에 파도에 미동도 않이하는 암석같은 평강입니다。해결할수없는 인생 문제를 눈재로써 무한히 싸어나갈인생 인간이성으로 도달한다고 하는 순간에서 허므러지는 현실의 오순 세계와 국가와 사회와우리가속안에서 한없이 교차하는 불안과 불만 병과 재난과 죽엄 불행 심페 천국의배천 국가와 성쇠 밀모르는 죄악성 유전하는 인생이 좁은지상에마음 볼일데없는 현실에 규화하는 비극을 역사는 사정없이짜나갑니다。

이와같은 역사와 현실에 진실하게 나타나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하신 예수가 지금도 역사와 중심에 엄연히 서게시고 우리에게 거듭하시고 게십니다。

「너희는 평안할지라」고 무종교자나 신앙자나 할것없이 기열한 현실은 우리에게 독촉하고 있습니다。예수에게가서 평안을 얻겠느냐? 예수를 등지고 무한의 불안세계에 자폭자기의 운명을 자취하랴느냐? 지금 이 세대는 종교가지라도 자기판단으로 좌우지취를요구 합니다。살길도 자취하여야 하고 비할길도 자취하라는것이 현대의 특별한 경향이거늘 예수의 말씀도 이성의 복종으로써 자취하게되는 심각성을 파학과 철학의 세계에 제의하고 결국 평안의 보배를 자취하라고 명령하여 계십니다。원자력시대에 오히려 그고도의 인간성을 초월하여 계시되는 평안 맛참내‖ 세기는 그리스도의 평안의 풍속을 향하야 몰밀듯 밀려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변명할수있을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엄을 우리에게 주서서 참다운 평안을 주신것입니다。사람은 누구나 가장 고민하는것은 내면적 불안 곧 양심의 불안 부모도 아지못하고 천구도 모르는 자기의 내면생활 곧 죄악의 고통이에대한 해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앞에 가기전에는 해결할수 없는것입니다。죄를벗은 후 우리에게 오는기쁨 죄악의 고통에서 해방받은 그 심정은 무엇으로 비할수없는 평안에 안주하게 되는것입니다。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하셨다는 복음을 진정내면에 죄악에대하야 불안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모 유익도 없는 것같이 생각된것입니다。바울도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읍니다。그러나 진심로 죄의고통과 불안에 자민 자탄한 사람에게는 천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최상의 운총이 될것입니다 여기에참다운 평안이 있는것입니다。악한 자에게는 평안이 없나니라 (이사야四十八○卄三 五十七○卄一) 사람의 지각에 뛰여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함은 우리내면 잔이죄를 벗은자가 가지는 참잖고 창크고 창으로 영원히 혼돌리지 않는평강입니다。

二、그리스드는 죽음에서 살일후 부활하셨읍니다。사람은 누구나 시간적 불안 곧 사망의 불안에 일생 노예 생활 할것입니다。현대의 대표적 대학자도 비행기의 추락으로 순간에 세상을 떠나가는대 세계가 대성통곡을 하여도 이세계적 보배 대학자를 사망에서 건저낼수없고 그 위대한 공적을 다시 계속케 할수없는것입니다。영원의 신비의 세계는 사망의 저언데인대 그리스도는 분명코 영역사적 현실에 부활하시고 영생의 증거를 주셨읍니다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아마 이 영원한 인생의 불안 사망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시간적 대평강을 얻게되는 것입니다。이것이야 말로 사람으로 찾을수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할수있는 것입니다。

三、그리스도는 내가 진리라하셨읍니다。사람은 누구나 공간적 대불안에 끝없는 추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대우주의 대공간에 충만한 대신비 대질서 그 공간적 장소적 세계에 마지막으로 인생은 찾어가려는 한점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불안입니다。파스칼 선생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 하였는대 생각하는 인생이 공간에 무한히 전개되여 있다。

(계속)

## 新約概論 福音書入門 (4)

### 마가福音書의 位置

그러나 파피어스가 마가복음이 로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 하였다면 그것은 권위자였는 「장로요한」에서 드른것은 아날것이다。웨나 하면 장로는 단지 「전에 베드로는 수종 들던자」라고만 하였을뿐이고 로마라는 말은 없다。이해석은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다。필자 자신이 「바벨론」이라는 말은반듯이 로마를 암시한것이라고는 ㄱ기 어렵다。단지 「가치인곳」을 표상한것이다。이것은 로마라고 보게된것은 목시록 (十장 19절에서 十九장十절) 와 영향에 의한 견해일뿐이다。따라서 파피어스가 이 한구절 (五장13만으로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썼다던가 마가요한과 베드로와의 로마활동설을 낸것이 라면 것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런즉 이레니우스 에서 시작하여 파피어스설에 올라 간다는 마가복음와 로마기원론이 「장로요한」에 외한것이라면 그 근거는대단히 박약한것이다 그러면 파피어스는 또다른 사료에 의한 것일가 베드로전서 외에는 신방할바가 없었던가? 그 베드로전서 五장十三절 외 증거는 확실한 것이였던가 하는 문제가 논외에 올라야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는 파연 로마에서 쓴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을받은것은 우에 말한바와 같이 초기에 베드로와 관계 있었다는데 있을 것이다。이러한 마가요한의 권위가 확대된 것은 예수와의 언행에 관한 구전이 몹시 존중을 받게된 사도들이 죽은후 시대에 바울계열의 제독자 라는것 보다 베드로 문하에서 예수님의 언행에 관한 일화를 드른자 라는 이유에 외한것이다。그렇다고 마가요한과 베드로와의 만년 관계를 로마 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일수 없다。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 하였다。(고고학적 확증)이라할지라도 마가요한이수종자로 로마에서 본격적 활동을 하였다는 이레니우스도 인정동이한것이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록한대로 베드로와 마가와 관계는 초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과 같다 후에 바울과 수종자로서 (골四 10절) 로마에 가서도 활동하게 되였던 것이라고 볼수 있는것이다。마가요한이 베드로와 아들 (벧전 五13) 이라고 존칭 (유세비어스 교회사 二권十五장) 그 근거는 매우 박약하다고 할수 밖에 없다。그러나 파피어스가 이런 설을 세웠다할지라도 그 시대에는 감히 반대할자나 기묘히 알자로 없었던것을 본다면 이 설명은 그때의교회에 정설로서 그도 이 베드로전서 五장13절에 증거를 삼었던 것이리라고 본다。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와 로마기원설을 초대교회에 확증을 구할때 오날와 남어있는 문헌 사료중에서 보다 파피어스 이전사료에 올라 갈수 없다고 할지라도 파피어스자신은 베드로전서 이외에 그 당시교회의 확증에 외한것이라는 인정이라한다

## 敎會學校 敎師講座 學生의 役割 (2)

魯安理

一 제일 첫째로는 학생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교사는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잘 알고 있음 같이 자기의 학생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의 재능 재간 히망 사명감 겁 신앙 발육 불전한 방면 요구 등이 어떻게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비로소 옳게 교육을 할수 있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면을 잘 지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나 태어 받은 천분이면서도 나타나 있지 않는 능력을 당겨내어 주며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게 하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의식케하는 것이 또한 이에 뒤떠러지지 않을 만치 중요한 일이다。예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도 아주 명인 이시었다。베드로 같은 변하기 쉬운 사람 속에서 요지불동한 바위 같은 옷짓을 동찰하였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와 속에 성자 의 인품을 동견하셨던 것이다。예술가나 부모나 교사에게 이와 잘은 동찰력이 있어야 함은 일반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인데 특히 교회 학교 교사는 이 동찰력을 연마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二 남에게 교육을 준다든지 혹은 남을 훌륭한 미술가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교사나 설비가 천하에 유가 없을 만치 완비한 것일지라도 만일 교육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거기에 힘을 기우려 열중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교육이나 재능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흥미가 없는 교육은 자짜하면 못된 습관이나 태도 다시말하면 무관심 명청 거짓 선생속겨먹지 교회나 종교의 염오 등의 역효과를 내기 쉽다 교수재료 혹은 공과를 앞세워 가지고 학생을 억지로 거기에 끌어다 붙어서는 안된다。사람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두 동무가 어떤 강의(講義) 강의에 출석하였다。하나는 강의에 매우 싫증이 났으나 하나는 결상 한 끝에 걸더앉은 채로 아주 열심이 듣고 있었다。강의의 내용 환경은 다 같은 한가지를 들었음에도 붙구하고 하나는 큰 흥미를 느끼고 하나는 전혀 느끼지 않었던 것이다。

교사는 학생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이것은 여러 계안에 나뉘었고 또 변화가 많은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일반적 원족을 귀납할수 있다。자발적이며 또 현재적인 관심 혹은 흥미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것을 한 온전하고 보편적인 목적에 향하여 인도하여 점점 넓게 전개시키고 발전 시키는 것이 교육 활동이 가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독성이라고 하여 좋을 것이다。이 방식으로 교수가 진행될 때엔 마치 하늘에 한이 없음 같은 끝임 없는 확대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위에 말해 온 것은 학생들의 들뜬 마음에 따르거나 일시적인 피상적 문제에 끌리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이런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 할수 없는 것이다。이렇게 버릇이 굳어지면 결국학생에게 좋지 못한 성품을 양성하는 것 밖에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중점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의 실 생활 상태를 자세하 알며 그들의 재주와 흥미를 비록 그것이 표면적인 흥미일거라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이것을 매개로 삼아 학생을 향상시키며 발전시키라는 것이다。이에 대한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다。

어떤 교회학교 고등부에서는 구약성서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거기에 제일 장랫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영화 배우를 심하 동경하였다。그의 「포즈」 그의 희극 노는 재주 책이나 신문 읽는 관심 등 모두가 다 그와 이 배우 숭배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선생은 이 학생을 바로잡으려고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여 오다가 「울치 그의 이 흥미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뜩 떠 올랐다。그렇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여 지도할 것을 몰라서 답답한 중에 있었다。다음 주일날 공과 토론 시간 때였다。선생은 우연하게 그 공과의 내용을 연출할 무대를 꾸밀 수 없는가 물었다。그랬더니 이 여학생은 즉시로 활발한 발언을 하여 나섰다。무대를 장치하는 데 무엇 무엇이 필요하여 또 장치하는 법은 어떻다는 등 기탄 없는 의견을 말해 주었는데 이런 문제에 한하여 아무도 그를 당할 수 없었다。그래서 선생은 이 학생에겐 어떤 감동 깊은 사건에 각색 을 붙이게 하였고 다른 학생들은 역사 (歷史) 혹은 동화 같은 것을 아는대로 써 보게 하였다。이와 같이 하여 학생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살려 주어 그것을 구체화시켰던 것이다。그들은 이 경험을 통하여 그림 끝 위대한 예술가의 해석이 있으면 성서를 더욱 잘 이해 할 수가 있다면 견해도 얻어 가지게 되었다。(계속)

## 殉敎史話 사랑의原子彈 (18)

안용준

일동은 인재야 목사님의 그 짧은감사의 뜻을 알었다。눈물은 다른의미에서 쏟아진다。

「아홉째 이같은 역경중에저 이상 여덟가지 진리와 신애를 찾는 기쁜마음 여유있는 믿음 주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ㅣㅁ사 가ㅣㅁ사 가ㅣㅁ사 합니다。」

그 얼굴은 웃는것 같었다。

「끝으로 오ㅣ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대본을 주신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돌려 마지않나이다。그러나 내가 이렇게 대복을 받게 된것은그 원인이 내께 있는것이 아니라 옛날 내아버지 내어머니와 새벽 마다 부르짖든 삼십오륙년간의 눈물로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총 형제자매들의 二十三년간 나와 네가족을 위해서 기도 해준 그 열매로 신신하며 여러분 에게도 감사하여 마지 않나이다。」

영결식은 이감사한 답사로 눈물의 골자구나가 되었다。

그후 부러 시잔후 입주의 여지없이 최!ㄱ 돌리진 동도 영결식에 참석했던 온 애양원 식구들은 입은 못 그대로 애양원 학생과 청년과 제직들에게 둘러쉬 애양원안을 삥!삥 돌아서 이리로 온 무강을 따라서 이하감식에 창열했다。한가운데 어제파놓은 한쌍 머둘두고 둘러선유가족을 의시한 백외선도들은 찬송 불을 때 울고 설교 들을 때 흙느끼고 약사와 애락사에 눈물울 쏟고 선목사님 답사에 놓라면서 울었고 신회 운란 됨때 마음껏 울었것만 막상 신최를 다시 지하에 묻을라 하니 인재는 말 못하는 신최나마도 못볼 생각을 하고 이제 후로는 한종 흙으로 될생각을 하니 남해도 거처드는 바다바람처럼 지구를 둘러싼 바다물결처럼 한숨과 눈물이 끝없이 작고 숫는다。

「만세 석열리 내가갑니다」 하는 七三장 찬송가도 제대로 계속이 못되고 데살노니가 전서四장十三절로 [illegible] 성경낭독도 귀 [illegible] 이인최전도사의 [illegible] 기도소리도 은헤 [illegible] 여유를 안주는 [illegible]

「아버지는 어 [illegible] 도하세요? 나는 [illegible] 할래야 용? 하든 [illegible] 네 아버지는 [illegible] 어떠 가보나 [illegible] 누구에게 말기고 [illegible] 옥종산 북방리 [illegible] 단을 쌓아 놓고 [illegible] 머니 내동생들 [illegible] 기도하든 동신아 [illegible] 동생들 다살어 [illegible] 가느냐 그기도 [illegible] 한달에 二十三 [illegible] 어 二十円식 [illegible] 네 어머니 내동 [illegible] 것만 너어때 가는 [illegible] 가서 나무해가지 [illegible] 쓸어지든 동신아 [illegible] 느냐! 이감산 [illegible] 그 누구더러 [illegible]

「내가 아버지 [illegible] 서 다시찾어와 [illegible] 서 일생을 보내 [illegible] 동인아! 우리들은 아주 [illegible] 있겠만 너어때 [illegible]

「네 후제저 [illegible] 께 산다」고 [illegible] 아 동신아 황선 [illegible] 만 너어떠 가 [illegible]

「후제 저서 [illegible] 둘지고 눈섭 [illegible] 는 동신아 네 [illegible] 낙제 해서 [illegible] 일가 애쓰면서 [illegible] 도하든 두옵바 [illegible] 에 섰는데 어 [illegible] 신사 참배 [illegible] 든 두형님 그 [illegible] 고만 가셨수 [illegible] 에 먼저 가시 [illegible] 신곳에 구경 [illegible] 시라든 그 모 [illegible] 매겼수! 옵바 형님 [illegible] 여기는 너이 [illegible] 서 놀든 동도 [illegible]

# 基督敎와 共産主義 (4)

神學博士 존C베넷트筆
法學博士 張利郁譯

## 迫害의 뜻

여기에 기독신자가 솔직하게 진면하지 않으면 아니될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어떤 기독신자는 종교적박해는 그 박해를 받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지배적우세를 가진 종교를 반대하는자에 대하여 공포정치로서 사회를 통일하는 수단이 었든 것이다。

박해를 가르처 박해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이라고 저당시하는 일은 그릇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영혼일망정 역시 신의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신앙과는 일치하였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종교박해는 공산주의자의 박해와 같은 종류의 것이였다。

전시의 기독교는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옳다고 믿었다。 또 일반으로는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반목이라도 사양하지 않었다。 그리고 교회까지라도 도외적으로 용허할수있는 전술과 또 용허할수 없는 전술에 대한 구별조차 하여보려고 힘도 써보지 않은 정도이다。 그러므로 전시의 기독교는 혁명시기의 공산주의로 더부러 크게 다른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이에 크게 같이아니한 사실이 있는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아니될 점이 있다。 그것은 즉 기독신자로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원수라는 자들이 신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하고 또 원수를 격파하여야 하는 불행한 입장에서게 될지라도 신의 자녀가 되는 원수에 대한 그 결심을 도저히 무시할수 없다는 것을 알어야하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이 원수와 같은 교회에 속하였거나 하는 관념은 이러한 태도를 뉴지할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이 단순한 감상적관념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신자의 태도인가 하는것은 원수로 더부러 유화의 가능성이 나타날 그때에 밝혀질 것이다。 여기에 공산주의가 가지지 못한 그 정신적배경이 있다。 만일 기독교로서 이것이 결여한다면 용서받을 길이없다

## 强制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이의 이 모든 상위점은 공산주의가 한 나라의 정권은 잡는 때에는 중대화 하여진다。 그 독재정치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비판이란 일절로 종국을 고하게 되고 공개적언론은 일절역압을 당하고만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가진 방법을 다 쓰게 될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이 완성하기만 하면 자유는 자연히 도라오리라고 하는 소박한 신앙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자유의 기구는 유약한식물파도 같아서 어디서던지 잘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공산주의자들이 위협과 기만으로 경작하여놓은 토지에서는 도저히 생장할수는 없다。 로서아출신의 교육을 받은 공산주의에게서는 정치적자유의 의의라든지 또는 정치상의 자유에 의지하여 옹호된 인권자유의 의의를 이해하는、같은 일은 도저히 바랄수도 없다。 비밀속에 잠겨버린 사회 밖에는 아무것도 더 바랄수없다。 이 비밀사회는 인간이 자기로서도 어찌할수없는 어떤 권력의 일종을 형성하여 그것이 점점 부패하고 그것을 영속시키기 위하여 점점 더 역압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하여 나는 그 있는 그대로의 가혹한 사실을 쓰고 있는 이때에도 깊이 그 비극을 통감한다。 여기에 봉건적 자본주의사회에 있는 불의에 대하여 도의적 항의로서 시작된 한개의 운동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완대하지 못한 어떤 정신적요구를 만족시킨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회적인 모든 죄악에 대하여 격분을 가지는 다수한 양심적 분자들을 끌고 있다。 그리고 그네들이 일즉 지내본 다른 무엇보다도 의의 깊게 느껴지는 인생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숭배와 무비판적 광열을 비할수있는 우월적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과 또 인격의 존엄과 인권자유에 대한 참된이해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해방의 약속이 없는 압제의 신질서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주로 기독신자들 자신이 신앙에 대한 혁명적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너무도 지체된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 完全한 法治國家可能이냐

## 그나라와 의를 求하라

**質問** 법치국가개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옳을가

**對答** 이질문은 총괄적인것인데 간단하게 말슴드린다면 우리는 국가라는 어구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을 이해하는가를 생각하여보자면 국가라는것은인간으로 말미아마 질서가 침해를 받었을때 개인은 전체에 대하여 세운바 인간의 외부생활을 질서롭게 하는노력이다。 또 전체는 개인에 대하여 피치못할 방해를 받게되는것이다 그야말로 질서만은 외부적권력으로 보장되는것이다。 이개념은 국가개념에서 문리할수는 없으나 국가는 그국가에 속한국민의 자유로운 책임에 부담될것이라는 개념에서 분리하여서는 아니되는것이다。 국가라는것은 모자와 같이 국민의머리에 씌울수는 없는것이다。 그보다 바루 이해하자면「너희국가니라—루이十四세의명언」하는말에서 이해할수 있을것이다。

국가라는것은 거기에 질서와 자유와 협동과 권력과 책임이라는 모든개념이 균형된것이여야한다。 그 어느하나라할지라도 절대화하여 그 다른것을 지배하여서는 안된다。 어느 개인의 자유만 타당하게되는 국가라는 것은 결코 법치국가라고 할수 없고 도로혀 무정부상태에 빠저가는 국가인것이다。 만약 어떤국가에 있어서 단순히 권력만에 치중하게될때에는 그국가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전제국가라 할것이다。 또 그와반대로 공동원족만 주장하는 나라라면 그나라는 개미의 육성은 있을넌지 모르나 결코 법치국가일수는 없는것이다。

올바른 의미의 국가라는것은 극단적 편벽이 없이 우에말한 여러가지 요소가 평등 평균하게 시행되는 국가라야하는것이다。 어떤 방향에서 이같은 올바른 국가를 찾어볼수 있으며 형성할수 있을가함은 어려운것인즉 이러한 근본적인것만 아려두는점에서 양해하여야할것이다。 그이유는 오늘날까지 이같은 완전한 법치국가라는 것이 이세상에 일우어진바가 없고 장차 마조막날까지 형성을 볼수는 없을것이라함이 바른줄 안다。 법치국가의요소는 한개의운동의 이상적상태일것뿐일것이다 이상실현운동에 있어서는 선한것이며 보다 나온것이라고 할수는 있으나 언제 어떤때에 어떻게 실현된다고 할수없는것이다。 그것이 세계역사의 의의기도하고 무의한것이 기도하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나라와 그의를 구할뿐이다。

**質問** 한정당에 소속함이 없을지라도 국민의의무를 이행할수 있느냐?

**對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이행한다는것은 어떤 처지에서나 이러나는것이다。 정치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 정당이 있다는 것은 국가생활 제二차적 현상이다。 정당은 불가피한 악인데 큰 악으로 발전할수있는것이다 그런때에는 정당관계를 끊고도 국민의의무를 바루 이행할수있는것이다。 사실사정에 따라서는 정당에 가담치않고 도로혀 항쟁함으로 국민의 의무를 실천 실행할수 있는것이다。

# 頹落한 小예루살렘

姜舜

소예루살렘 소예루살렘아!—
언덕에 서있어 오는이 가는이가 다 처다 보았다。
종각에서는 가부리엘이 웅웅 울렸다。
난날 흰옷입고 드나드던 영원의 아써들!

처혈 매듭은 어디 메가고
오순절 다락불이 언제 꺼졌소!
印은 불었으나 가뭇 감초 하다。
여기 덩어리로의 불룸 아사라졌으니
硫酸맞인듯 갈래 갈래 헌팽이다。

遺景에다 밀어 붙이면 그대로 落照비낀
푸른사진 으로 돌아。갈게나랑。

벽은 문어 졌구나。 주룸은 세속에 瑠璃했나。
녹슨문은 귀치않은 출입에 삐꺽 울었다。
마리아의 향유내가 틸,리의 花影 키녕 紫漢 했지
훈훈 함이 까스러 졌다。

이구석 立像이 런지바람을 덮어쓰고 靜寂
저구석 허황한 참새 종이는 祝祭 뒷날의
　무섬은 정숙에 펄럭 거린다。
윗문은 금나고 흐리어 어두움에 눈이 팔렸기에
아랫창은 어느새 빵빵이 파손체로 허터저
쥐새끼 깃 굴어 하잖은 소—조한 나른당。
거밋 줄보다 음울한 구명이여 성첨 함이여!
마루바닥에나 타일에 서나
곰파와 버섯과 兩棲類가 기어 남이여!

저기서 흐느끼는 이가 루터—의 아인가!
여기 너털 웃음은 新法衣을 둘린 쓰코라에四歸냐

## 그래도 종은 울린다

### △主日을 記憶하라▽

뉴—쓰 카멜라 멘온 사트를 누르려 오랑。
허몰벗듯 패딕지를 버리려 노랑。
바다 건너갈 旅券次 오랑。
바다 건너온 향수뿌린 뉴—룩로 오랑。
이는 이로 갚으려 오랑。
소낙비에 젖은 날부아래 피스톨을 찾던 오라
환상의 큰 가방을 들고 오랑。
구랭이는 진담을 꾸러오랑。

여기 빼더—와 앞내가 나고
여기 쌈터—와 硝煙이 나고
여기 패악의 뒷 내가나고
여기 사람을 멀리한 내가나고

오오 二千年지녀오는 기와장이 떡지처럼 벗기워도
아니 태초부터 동근 하늘에서오는 햇날 햇날이며!
너가 있고 너가 운행하는 푸른 마당이있고
너의 운수와 명맥을 주장하시는 이가 훈로 살아계십진대
온갖모도 한결같을때도 땅에 기는목숨도
또 너가 었기에 푸리즘을 돌려대며 가진 써뉴—둔
비젓는 자여!

악한 밭에도 성한밭에도 풍성한 가실을 배풂은
오오 신약의 태양은 살아 이다지 쏟아지는 빛살이여!
허랐기에 가리움이 치워지고 퇴락하였기에 더욱 싱싱히
주인이여!

임의 잇김간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시던 화차리를 드시고
크나큰 재림의 전날밤
당신의 옷자락이 덥힌 문을 노크하소서
풍우대작같이 엄하시게 책하시려
전란에 미친 머리들이 모인 고린도
이 찬바람이 이 陰濕이 占據한
믿음터를 찾으시지 않으시렵니까?
해골이 딩구는 빈뜰에선 상한 갈대밭에는
그러나 포도가의게 남풍같이 오시지 않으시렵니까

종려가지도 감람 잎새도 月桂樹도 파내간뒤
마당에는 신살구가 풋풋 떠러졌다。
양개가 컹컹 짖었다。

(一九五二年 二月 十一日)

# 中國共産主義와 基督敎 (3)

K·E뿌리슬리

## 告發大會

이 유명한 고발대회야 말로 외국인의 격별한 주의를 끌고 있다。 여게는 카톨리파 신교(新敎)의 무수한 남녀신도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고발대회는 서양인사들로 하여곰 중국에 대하여 극도의 반감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중국은 이제야 말로 운명한 국가가 아니오 오직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에 있어서도 그 최저급(最低級)을 대표 하는 존재로 밖에 인종할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이 고발대회가 사용하는 그 모든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방식이 극히 거줏 되면서도 사교적이라는 점과 또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에게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그 계획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으로 보아서 그러한 것이다。 여게 대하여는 솔직한 선언도 발표된것 있다。 一九五一年 四月五日 북경(北京) 시사편람(時事便覽)에 발표된 뇨、캐、근러의 글이 그러하고 또 미국제국주의반항 한국원조 교회개혁을 위한 중국기독신자위원회(中國基督信徒委員會) 준비위원회의 뉴 량모의 글이 그러한것이다。

이 고발대회가 열리는 것은 무순 진가(眞假)를 밝힌다던지 혹은 어떤 정의를 드러내기 위한것은 아니다。 그 진행박식을 상세히 준비하고 또 몇번이라도 이것을 연습 시켜서 그 청중으로 하여곰 충분된 감정을 쏟아놓을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미국에 대한 증오심(憎惡心)과 히스테리 만을 격발 시킨다면 그 고발파 비난의 내용이 적절하거나 아니하거나가 분제되지 안는다。 광범한 지방위원회가 조직 되어가지고 마츰 온 고발을 받어야할 인물을 조사하고 그 후에는 고발자를 택하여 고발하는 모든 절차를 연습 시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종교사업부로서는 모든 필요한 지도와 고문에 농할뿐 아니라 또 선전에 필요한 자료도 세심해서 제공한다。 또 실제로 고발자가 될 사람들은 주도할 지도하에서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을 몇번이라도 연습해서 최후무대에 나설것을 준비한다。 이 고발에 사용할 각종 증거품을 모흐기 위하여는 가지 각색의 수단을 쓰는 것이다。 서신 사진 레이디오 송신기무기 독양 등을 모흔뿐 아니라 대회 끝에는 지방전람회 까지 였는것이다。 만일 그 수집품이 넉넉지 못한 경우라면 이것을 상해(上海)후추로 一三一에 준비위원회로 보내서 전국적 규모의 선전이나 혹은 전시회(展示海)를 위하여 사용케 한다。 교역자(敎役者)들은 이상 정도의 것만으로 몽과되는 것은 아니오 계속해서 교육을 받어야 한다。 그들은 시사연구(時事硏究) 그룹과 또 이운동을 선전하는데 있어 격별히 활동하지 않어서는 아니된다。

그런고로 이 고발대회 라는것을 어느정도 서양각국에서 보는 법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교회신자들 사이에 공산주의 선전열을 대대적으로 일우키는 점화공작(點火工作)에 있어서 한개 불꽃에 지나지 안는것이오 또 무식한 중국이 대중으로 하여곰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하려는 야비무쌍한 수단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정세아레 있어 그들이 어떤 개인목사나 후「가리 단」과 같은 단체들 고발하는 그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는것이다。 그것은 그 고발의 구상이 어떤 사실의 참과 거줏을 찾자는데 있는것이 아니오 오직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만을 겨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 수녀들이 그 병원에 거이다 죽게되여서 다려온 어린 아이들을 확살하였다고 부고 한다는것은 기괴망측도 지나서 그저 아연할 뿐이다。 오날 당면한 문제의 골자는 기독교가 중국에 존재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이다。

福音戰鬪에 兄弟愛强調
救世軍萬國總督歡迎會

歡迎會答辭